

# 住宅과 國民性

任 東 權(서라벌 예술대학장)

人類가 山野를 헤메면서 짐승을 잡고 生活하던 때에는 住宅을 갖을 필요도 없었거니와 또 一定한 住宅을 갖을 수도 없었다. 季節을 따라 移動해야 하고 짐승이 많은 곳을 찾아 다니며 野營을 하면서 生活을 하였으니 이러한 時代에는 住宅이란 생각도 못했다.

사람이 따 먹을 수 있는 果木이 많은 곳이 발견되면 그 곳에 임시로 머물러 있다가 果實을 다 먹으면 다시 새로운 곳 즉, 짐승이 있거나 果實이 많은 곳을 찾아서 가야만 生存이 可能했으니 한 곳에서만 住宅을 마련하고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에는 住宅이나 家具는 生存하는데 不可欠한 가장 最少限度의 것이 필요했을 뿐이고 오늘날 같은 住宅이란 개념은 없었다.

그러나 人類의 智慧가 發達하고 能力이 생겨서 農耕으로 充分한 食糧을 마련할 수 있는 方法이 마련됨에 따라 流浪을 버리고 一定한 곳에 定着하여 住宅을 갖게 되었다. 짐승을 쫓아다니고 季節을 따라 流浪하면서 生活할 적에는 簡易한 집이 必要했지마는 한 곳에 定着해서 農事를 짓게 되자 형편이 달라지게 되었다.

農耕生活을 위해서 住宅을 마련하려면 原始社會에서 필요로했던 寢室과 炊事を 위주로 하는 것 외에 穀物을 저장하는 창고와 器具를 간수하는 부속건물과 家畜을 위한 畜舎까지 지어야 했으니 규모가 커지고 살림의 程度에 따라 여러층의 住宅의 종류가 생기게 되었다.

家屋의 樣式은 풍토에서도 影響을 받았다. 雨量이 적고 많음이라든가 寒暑의 差에 따라서 資材와 位置構造를 달리하게 되었다. 비가 많은 地方에서는 지붕의 傾斜度가 다르고 추운 地方에서는 벽이 두껍고 더운 地方에서는 窓이 크고 많다. 이러한 現象은 風土에 의해서 家屋의 樣式이 特徵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韓民族은 「農者天下之大本」으로 삼는 農耕民族이다. 따라서 農耕生活에 알맞은 家屋을 마련하고 살아왔다. 또 韓民族은 큰 差가 없는 비슷한 風土의 條件下에서 살아왔다. 그 結果에 있어 住宅樣式도 비슷한 形態로 나타났다. 農事로 얻은 粟으로

지붕을 하고 山에서 많이 生産되는 松木으로 建築材로 썼으며 西北風을 막기 위해서 山의 南이나 東南쪽에 집터를 잡고 南向으로 집을 지었다. 이러한 一般性은 바로 國民生活, 國民性과 關係를 갖는다.

住宅은 터를 잡고, 方向을 定하며 建築하고 그 속에서 사는데 있어 家具 裝飾, 衣服과 娛樂 및 慣習은 國民生活의 特徵을 나타나게 된다.

韓國에서는 집터를 잡고 方向을 定하는데 風水思想이 作用했다. 藏風得水에서 온 말인바 天父地母思想에 根據를 두고 大地의 生産力에 着眠하여 旺盛한 地氣의 德을 받고 하는 方術의 하나이다. 即 大地에는 地氣가 있으니 地氣가 集中하여 地力이 旺盛한 곳을 擇하여 陰宅이나 陽基를 마련하므로서 地德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이 것이 所謂 明堂이다.

집을 明堂자리에 지으면 發福한다는 생각은 過去에 一般的인 思考方式이었다. 人間의 運命을 스스로의 힘이나 努力으로 解決하려고 들지 않고 明堂을 찾아 집터를 잡고, 묘자리를 잡으므로 解決하려는 것이다. 風水가 經濟地理와 關係가 있어서 藏風하여 溫和한 곳은 生活하기가 좋고 또 河川이 있어 水利에 便하며 現實적으로 生活이 潤澤한 것이니 科學的인 根據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이것을 지나치게 믿고 明堂을 찾으려는 생각에는 여러 가지 問題가 있다.

집을 지을 때에 坐向을 본다. 즉 어느 쪽을 向해서 집을 지을 것인가 하는 問題를 檢討한다. 近來에 都市에서는 이미 定해진 道路를 감안해서 坐向을 定할 수밖에 없지만 農山村에서는 太陽을 向해서 南向을 잡는 것이 一般的이나 在來의 慣習에 따라 民族的인 思考가 加해진다. 여기에는 風水的인 생각도 作用하지마는 家主의 四柱나 地形 또는 年月에 따라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를 定한다. 또 사람이 出入하는 大門의 方向이 家運과 關聯이 있다고 믿어지고 있다. 農山村에서 이미 마련된 大門을 막고 새 方向으로 大門을 내는 수가 있으니 이런 例는 大門의 向이 나빠서 家運이 좋지 못하거나 惡運 또는 厄이 있다고 믿는데서 그렇게 하

는 것이다. 生活의 便宜에 의해서가 아니고 俗信에서 하는 것도 오랜 國民生活 속에서 빚어진 것이다.

집터를 잡고 坐向이 決定되면 建築에 들어 가는 데, 집을 짓기 시작하기 앞서 地神을 慰安하고 告하는 儀式이 있다.

아니미즘(Animism)에 의하면 万物에는 神이 있다고 하는바, 大地에도 여러 神이 있어서 山을 맡고 있는 여러 山神이 있고 집터를 맡고 있는 地神인 터주(基主)가 있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에는 터주에게 아무게가 집을 짓겠다고 告하는 地鎮祭를 지낸다. 터주에 알림도 없이 役事를 하면 터주의 노여움을 사게 되고 禍를 입거나 家運에 厄이 있어 發福할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新築에 앞서 터주를 慰安하고 祭祀하는 民俗이 생긴 것이다.

韓國民家の 樣式은 ㄱ字집 ㄷ字집 一 字 집 격 집 等 몇가지 形態가 있으나 主屋은 안房 大廳마루 건넌방 부엌이 있고 때로는 골房과 다락과 사랑房이 붙는 수가 있다. 附屬建築으로서 畜舍, 庫間 뒷間 等이 있기 마련이다. 地方에 따라 또는 生活程度에 따라서 多數의 差異는 있으나 一般的으로 이와 같은 構造가 마련 되고 있다.

家屋안에는 여러 神들이 坐定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大門을 들어서면 門神이 出入을 단속하고 있으며, 대들보에는 成造神이 있어 家屋안에 있는 神中에서 主神役을 맡고 있으며, 아궁이에는 竈王神, 庫間에는 業主가 있고 便所에는 정지뿔가 있다. 이 밖에도 장독대, 마당, 부엌, 畜舍에 제각기 맡고 있는 雜神들이 있다고 傳한다.

年初에 吉日을 擇해서 安宅을 지내고 또 十月에 主로 午日을 擇해서 고사를 하는 것은 諸家神을 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므로서 家運의 隆盛을 祈願하는 것이다.

조왕神은 아궁이에 坐定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부뚜막에 걸터앉는 것은 禁忌되어 있다. 조왕신이 설달 중순을 지나 하늘에 올라가서 玉皇上帝께 집안에서 一年동안 發生한 일을 모조리 報告하고 그믐날 내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惡行을 저지른 사람은 조왕神의 입이 벌려지지 않아서 報告를 하지 못하도록 아궁이에 갓엇을 바르는 수가 있다.

庫間이나 노적가리에 있다는 業主는 財産神이다. 業이 있으면 財産이 維持되고 더 나아가서는 늘어난다. 그러나 業이 나가면 따라서 財産도 줄고 때로는 破産을 하게 되어 敗家를 한다는 것이다. 業

은 쪽제비, 배암, 두꺼비 등이 神體가 되는 일이 많으니 이러한 때에 그 動物을 죽이는 것은 곧 業이 없어지는 것이니 업을 죽이는 것은 禁忌 되어 있다.

장독대 근처의 土石은 함부로 役事를 하지 않는다. 장독대는 不淨해야 하고 神聖한 곳으로 神域처럼 여겨지고 있다. 平地보다는 조금 높게 마련하며 不潔한 것의 接近을 禁하고 淸水를 올려 精誠을 보인다.

안房이나 또는 며느리가 아이를 낳는 房에는 産神이 標示되어 있다. 産神은 俗稱 삼신할머니라고 부르는바 子息이 있고 없고, 또는 순산하고 난산하고 하는 것은 모두 産神이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富貴多男한 것을 理想으로 삼았던 옛 사람들은 多男하고 壽長하기를 삼신할머니께 간절히 빌었던 것이다.

房안에서 人生의 吉凶을 占치는 方法도 있었다. 아침에 거미가 天井에서 내려오면 吉兆이고 그와 反對로 저녁에 거미가 내려오면 凶兆로 여기고 있다. 아침에 東쪽에서 까치가 울면 科擧에 及弟할 徵兆이니 吉兆이다. 이러한 俗信도 住宅內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福德房영감들이 집사려 온 사람에게 「東向大門에 南向판의 좋은 집」이 있다고 말을 흔히 한다. 서울의 平民의 典型的 家屋이 ㄷ字 型인데서 하는 말이다. 南向은 太陽을 向해서 있기 때문에 늘 햇볕이 있어 雜病이 없어 衛生的이라고 하거니와 그 것보다도 南向일 때 大門이 東向이면 可하나 西向이면 敗家의 징조라고 해석하는 데에서 나온 말이다.

南向판의 東向大門일 때에 主婦가 부엌에서 주걱으로 솥에서 밥을 퍼는 姿勢는 大門밖에 있는 福을 굽어드리는 姿勢이니 吉한 것이고, 그와 反對로 西向大門일 때에는 主婦의 주걱 손질이 마치고 집안의 福을 門밖으로 퍼내는 格이 되므로 사람들이 끄린다는 것이다. 따라서 南向판 집일 때에는 東向大門이어야 하지 西向大門은 敗家之兆가 된다.

ㄷ字型의 집이 南向판일 때에는 장독대의 位置가 집 뒤가 아니고 집앞 마당에 있어야 한다. 空間의 처리 보다는 ㄱ字型이 된다는 民俗信仰에서 그렇게 解釋되고 있다.

韓國의 家庭에서는 불씨를 꺼치지 않고 잘 간직하는 慣習이 있었다. 오늘날에는 라이타가 있고, 값이 싼 성냥이 얼마든지 있어서 불의 고마움을 모르고 있으나 그러한 것이 없어서 부시들로 불을 살

여야 하던 時代에 있어서는 불씨는 매우 소중한 것이었으니 主婦는 불씨를 간수하는 任務를 맡아야 했다. 머느리가 불씨를 잘 못해서 꺼뜨리면 이웃에 가서 얻어와야 했으니 꾸지람을 들어야 했다. 그러한 慣習에서 요즈음 서울에서도 移徙가는 사람이 煉炭불을 가지고 가는 것은 煉炭불이 사르기 어렵다는 것보다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가지고 간다는 데에서 福이 連結된다는 俗信에 의한 것이다.

溫突은 韓國家屋의 特徵이다. 溫突이 山의 樹木을 없애고 山을 벌거숭이로 만들어 經濟적으로 피해를 주었거니와 身體의으로도 缺陷을 주었다.

溫突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앉을 때보다 발을 개고 앉을 때가 많다. 무릎을 꿇면 바닥이 딱딱하니 바로 절리고 아파서 오래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발을 개고 앉는 姿勢를 取하게 된다. 그 結果에 허리가 굽고, 일어서면 무릎이 붙지않고 벌어지며, 걸을 때에 발끝이 밖으로 나오는 八字걸음이 된다.

溫突은 우리의 生活에 많은 影響을 주었다. 우리는 溫突에서 자라고 生活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溫突文化를 形成하고 溫突生活이 주는 國民性을 지니게 되었다.

便器로 쓰는 요강은 뒷간을 멀리 짓고 溫突에 사는 生活의 副產物이며 韓服은 溫突房에 알맞는 衣服이다. 洋服은 발을 개고 溫突房에 앉기에는 不便하다. 치마나 바지는 폭이 넓어서 앉기에 便하다. 韓服이 非生活的이란 비난은 듣지만 溫突房生活에는 적격이다. 衣藏 門匣 반다지도 좁은 房의 家具로서 알맞다. 溫突房은 保溫때문에 넓지 못하니 좁은 스페스를 活用하고 裝飾하기에 적당한 家具가 考案된 것이다.

溫突房이기에 장판을 해야 했고 오래 쓰기 위해서 容법을 하였으니 壁紙와 天井紙의 圖案도 古典의 情趣를 풍기게 되었다. 장판房 아래쪽에 보료를 깔거나 아니면 大廳에 花紋席을 깔고 伽倻琴을 타는 것은 韓國의 멋중에도 멋이니 壁에는 四君子나 書畫가 걸려 있어야 한다. 伽倻琴과 書畫는 音樂과 美術의 調和를 이루어 藝術性을 보여주었으니 韓國住宅의 高요하고 悠長한 氛圍氣에서 마련된 것이다.

지붕과 부연의 느린 曲線은 서둘지 않는 沈着性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따뜻한 溫突房에 모여드는에서 韓國家庭의 人情어린 情緒가 形成되었다. 大家族을 連結시키는 家族制度와 어른을 尊敬하는 長幼秩序도 溫突房의 氛圍氣 속에서 더욱 자

랐던 것이다.

溫突房은 乾燥하기 마련이다. 더욱이 登簷불을 켜놓던 時代에는 더욱 乾燥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房안에는 승냥그릇이 있고 겨울밤에도 차거운 동침이 국물을 마시게 된다. 웃놀이나 증경도놀이에 밤이 깊었을 때에는 냉수 또는 동침이 국물로, 목을 축인다. 웃놀이와 증경도놀이도 溫突房에 알맞는 娛樂이다.

中國人의 住宅은 窓이 작아서 房이 어둡기 마련이다. 그래서 어둡컴컴한 房이 들어가면 「中國웃떡집 같다」는 말을 한다. 房이 어둔 것처럼 中國人들은 自己의 마음속은 남에게 밝히려 들지 않는다. 그러나 韓國의 住宅은 光明을 向해서 窓을 내고 窓에서 밖을 내다본다. 窓에서 밖을 내다보는 것은 속을 시원하게 하고 또 窓을 通해서 속을 보여도 거리낌이 없게 여기고 있다.

窓이나 大廳 또는 뜰에서 훤히 트인 앞을 내다보는 것은 사람의 度量을 크게 한다. 窓을 열고도 하늘을 볼수 없는 것은 大自然과의 接觸이 막혀있고 간혀서 살게 되니 사람의 됨됨도 凶穢해진다. 그런 意味에서 볼 때에 農家의 훤히 트인 住宅은 비록 文明의 惠澤은 못받고 있으나 自然을 滿喫하고 있으며 요즈음의 都市의 住宅처럼 窓門을 열면 장독이나 앞집 담으로 가린 住宅에서 成長하는 것은 사람의 度量이 凶穢해질 可能性이 있어 再檢討해야할 問題點을 지니고 있다.

사람은 누구나 집에서 산다. 제집이건 남의 집이건 집을 지니고 있다. 집에서 生活을 營爲하고 중요한 일들이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子息을 낳고 기르고, 家庭을 꾸미고, 일을 構想하고 대개가 집에서 하게 된다. 따라서 집에는 情이 있고 저녁이 되면 나갔던 사람도 집에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집에서 사는 동안에 내 意思에 따라 집을 改造하고 새로 設計하고 創作함도 있으나 집에서 사는 동안 그 構造의 影響을 받고 있다.

안房은 內室이니 主로 婦女子가 쓰고 뜰아래 사랑房은 男性과 來客을 爲해서 使用되며, 같은 房에서도 따뜻한 아래목은 어른을 위한 곳으로 여기는 등 民俗性이 成立되고 國民全體의 생각이 集約되어 國民性을 形成하게 되는 것이다.

住宅이 단순히 우리가 起居하는 곳으로 使用될 뿐 아니라 國民性形成에 作用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住宅을 지을 때에 現實의 問題만을 解決할 것이 아니라 未來의 問題, 未來의 國民性形成을 十分 檢討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